

APEC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각료회의

I. 핵심요지

- 베트남 정부가 주최한 “조류 및 인간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APEC 각료회의(APEC Ministerial Meeting on Avian and Influenza Pandemics)”가 5월 4~6(3일간), 다낭에서 개최, 21개 회원국 및 UN, WHO, OIE, WB, ADB, FAO 등이 참석하여, “조류 및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 활동계획(Action Plan on the Prevention and Responses to Avian and Influenza Pandemics)”을 채택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 우리 대표단(수석대표: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은 2003년 우리나라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발생사실을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였고, 2004년 이후 매년 대유행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와 관련하여 외국에 기술적인 지원을 수행해

왔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570만 불 상당의 양자 또는 다자지원을 시행하는 등 우리 정부가 그간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설명하고 향후에도 조류 및 인간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 나갈 것임을 밝힘.

II. 회의 주요 결과

1.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 채택

- 각료들은 캐나다가 제안한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을 채택하고 활동계획의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함.
- ※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 주요 내용

- 본 활동계획은 2005년 정상회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하여 마련되었으며 회원국들은 상호 기술 및 재원을 공유하여 지역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함.

- APEC 회원국들은 다음 영역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함.

- 1) 조류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부문간 협력과 조율 지원
- 2) 위해정보 공유를 위한 공동 실행계획 및 접근 방안 마련
- 3) 조류인플루엔자의 축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 4) 업무유지, 통상 및 필수서비스 보장을 위한 민간부문과 협력
- 5) 지역내 및 국제 공조 노력 강화

- APEC 활동계획 수립시 원칙

- 1) 부문간 파트너십 구축 및 개발
- 2) Communication 강화 및 회원국들간 적시의 투명한 정보 공유강화
- 3) 업무의 중복을 피하면서 APEC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WHO, FAO, OIE, 기타 국제기구들의 업무 지원 및 보완

■ 우리 대표단은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리 사례와 대유행 대비 관련 우리 정부의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향후에도 활동계획 이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의지를 표명함.

- 우리정부는 2003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사실을 국제사회와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였음.

- 우리정부는 효율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하여 2003 - 2004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수의당국과 보건당국이 초기계획 단계부터 긴밀하게 협조하였고, 인수공통전염병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속한 정보공유와 정책공조를 수행하였음.

- 우리정부는 2004년 이후 매년 대유행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외국에 도상훈련관련 기술지원을 수행해왔으며, 2006년 10월 개최할 도상훈련에 역내 10여개 국가를 참관자격으로 초청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WHO와 연계하여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임.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570만불 상당의 양자 또는 다자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정부는 그간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조류 및 인간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협조할 것임.

III. 관찰/평가

■ 금번 회의를 통하여 각료들은 2005년 정상회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이니셔티브를 기초로 하여 마련된 '조류

인플루엔자 및 대유행 대비 APEC 활동 계획'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향후 조류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회원국들은 효율적인 조류인플루엔자 관리와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함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활동 계획을 채택하였음

■ APEC 사무국은 활동계획에서 주요 이슈로 제시하고 있듯이 수의당국과 보건당국의 협력강화를 위하여 보건부와 농림부의 동참을 독려하였으며, 대다수의 나라가 보건부와 농림부에서 참여함으로써 금번 회의가 향후 AI 관련 부문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향후 AI 관련 농림부와 보건부 공동회의 개최 필요성이 제기됨

■ 금번 회의에는 장관급 참여 7개국, 차관급 참여 5개국, 주베트남 외교부 공관대표 9개국, WHO 지역사무처장 참여 등 고위급 참여가 많아 회원국이 금번 회의를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활동계획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쟁점이 있었으며 이 쟁점들을 통하여 국제기구 및 각국의 이해관계를 엿볼 수 있었음.

-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검체(혈액, 호흡기검체, 분리된 바이러스 등)의 국제적인 공유가 필요하다는 항목

•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바이러스만 공유할

것을 주장함

• 중국은 현재까지 확진을 위하여 WHO협력 실험실에 검체를 의뢰한 적이 없으며 2004년 분리된 바이러스만 국제사회와 공유를 추진중에 있음

• 바이러스는 특히 백신 개발 관련하여 국제적인 공유가 필수적이거나 중국은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이익만 관찰하고 있으며 이는 대유행시 국가 안보를 위한 무기가 될 수 있음

• 최근 중국은 북경회의 이후 뒤늦게 2004년 바이러스만 제공했으며, 검체 공유에 적극적이지 않은 중국은 바이러스만 공유할 것을 주장함

• 이에 WHO는 검체에는 확진을 위한 혈액, 호흡기 검체 등도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 미국·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가 이에 동의하였고 일부 진단능력이 없는 국가는 확진을 위하여 외국에 의존하여야 함을 들어 최종적으로 바이러스가 아닌 검체라는 용어에 합의함

- 가금류 통상관련 질병이 없는 지역에 대한 설정(Promote the development of animal epidemic disease free areas) 항목

• 중국은 이부분에서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음을 주장함

• 현재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중국은 강화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가금류 수출
이나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는 것
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OIE
등은 이미 OIE에 이와 관련 규정이 있고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주장을 제기, 중국측

이 이를 수용, 회원국들도 이에 합의함

- 최종적으로 ‘promote the development
of disease free zone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로 합의되었음.

[자료: 주베트남대사관]